

생사기로 놓인 국내 영화산업



벼랑 끝 한국 영화? ‘쿠폰의 반전’ 있을까

이재명 정부가 극장에 돈을 쏟아부었다. 271억 원을 써서 티켓 450만 장을 샀다. 지난달 25일 ‘살포된’ 이 티켓으로 관객들은 기존 티켓 가격에서 6000원을 할인 받아 영화를 볼 수 있다. 문화의 날(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의 경우에는 티켓 가격이 7000원이나 단돈 1000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바로 그런 날인 7월 30일 86만2234명이 영화관을 찾았다. 7월 최고 기록이자 올 최고 일일 관객수다. 하지만 영화별 흥행은 갈렸다. ‘쫄비탈’에만 43만 명이 몰렸다.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전지적 독자 시점’에는 미미한 변화만 있었다. 할인 쿠폰 정책은 좀더 두고봐야 할 시점이라는 얘기다.

과연 극장은 이 응급책으로 지금의 빈사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직접적으로 할인 쿠폰의 수혜를 입게 되는 영화들은 어떤 작품들이 될까. 할인 쿠폰 정책이 영화 관객 수의 마지노선인 1억 명 선을 지킬 수 있을까. 2019년 2억3000명까지 갔던 한국의 영화 관객 수는 올해 1억 명을 밑돌 것인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를 두고 영화계가 ‘반타자 낚다’는 아우성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과연 극장 쿠폰이 대반전을 가져올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일단 티켓이 싼 가격으로 우르르 나오게 되자 가장 반색할 영화로 전망됐던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의 성적도 상정적이다. ‘창천만’을 기록한 ‘신과 함께 1, 2’를 만든 리얼라이즈 픽처스가 5년의 제작 기간을 거쳐 만든 영화다. 제작비가 312억원이 들었으니 손익분기점은 600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이후 31일 기준 관객 수는 85만7517명. 첫 주말 성적이 60만 명 선이었고, 아마도 최종 성적은 200만 명 안팎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독시’ 같은 영화가 티켓을 거의 무료 수준으로 나눠주고 있는 상황에서(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천혜의 상황에서도) 만약 극장 흥행에 실패한다면 올 한해 한국 영화계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영화계 인사들 대개가 모두 입조심하며 전전긍긍 하고 있는 이유다.

‘전독시’의 배급사인 롯데 엔터테인먼트는 이 영화가 이미 113개 나라에 선풍매 뒀음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럴 땐 선풍매 국가의 수가 아니라 선풍매 액수가 중요하단 이는 영업 비밀이라 공개 노출이 안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수에 비해 액수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속사정은 대체로 투자자들이

정부, 6000원 극장쿠폰 긴급 수혈
지난달 문화의 날 ‘쫄비탈’ 43만 몰려
312억 대작 ‘전독시’ 흥행할지 주목

‘범죄도시’ 빠진 올해 천만영화 실종
제작 상업영화 25편, 몰랑도 밀려
“5000억 제작펀드 조성해야” 주장도

큰 손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을 것이다.

‘전독시’는 ‘더 테러 라이브’ (2013)로 혜성처럼 등장했던 김병우 감독의 연출작이다. 그의 야심작 ‘PMC 더 벙커’는 화려한 캐스팅에도 흥행, 비평 면에서 모두 처참했기에 이번 ‘전독시’는 그의 와신상담 작품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다. 그럼에도 부진한 이유에 대해선 이후 더 자세히 분석되겠지만, 일단 ‘새롭지 않다’는 점에 있다. 한국 관객들은 영화적으로 선(先)경험이 꽤 풍부하며 고급스러운 측면이 있다. 특히 젊은 관객들은 취향의 유동성이 급전직하로 변하는 세대다. 그들은 영화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자신들의 용어로 ‘구리다’는 표현을 가차 없이 퍼붓는다.

‘전독시’는 여러 영화의 아우라를 차용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오징어 게임’ 같은 생존 게임을 생각나게 하고, 외계에서 온 괴물들은 연상호의 ‘지옥’을 연상하게 만들며, 신의 분노라는 다소 뜬금없는 설정은 ‘신과 함께’를 떠올리게 한다. 이걸 과거의 답습이다. 한국 영화는 지금 복습할 시간과 여유가 없다. 관객들의 냉정한 평가는 바로 이런 분위기로 모아진다. 물론 좋은 점도 있다. 황당한 디스토피아적 설정으로 영화는 자본주의 사회의 극악한 약육강식의 문제, 부자와 강자만이 살아남는 끝 간 데 없는 경쟁 풍토에 던지는 비판의 칼날을 세운다.

할리우드 대작 ‘슈퍼맨’도 한국선 맥 못 취
그러나 그게 ‘넌지시’에 그친다는 점에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영화 속 지하철 난투극 와중에도 그린 존(생존 지역)의 다수를 차지하며 거들먹거리는 총무로 사채업자 공필두(박호산) 캐릭터야말로 인류가 망하는 와중에도 현금·부동산 부자가 생존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정도다. 게다가 영화는 온통 CG로 채워져 있는데, 서사가 뒤따르지 않을 때 영화의 하이테크놀로지는 이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역설한다. 예컨대 비슷한 판타지물로 위에서 언급한 ‘신과 함께’의 경우 후반의 신파 서사가 관객들을 크게 요동치게 했다. ‘전독시’에서 빠진 것은 스토리의 총출현, 치밀한 계산이다.

2025년 현재까지 올해 최대 관객 영화는 황병국 감독의 ‘야당’이었다. 337만8166명을 모았다. 한국 영화의 천만 관객 시대는 끝났다. 지난 몇 년간 매년 5월이면 나왔던 마동석의 프랜차이즈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는 올해 나오지 않았다. 마동석 영화 한 편에 기대 있었던 한국 영화산업의 현실이 구슬프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다.

올해 상반기 개봉 영화 누적관객 수

순위	영화명	감독	제작국	전국 관객수(명)
1	야당	황병국	한국	336만3981
2	미키 17	봉준호	미국	301만3500
3	히트맨2	최원섭	한국	254만7448
4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크리스토퍼 맥쿼리	미국	233만4727
5	하얼빈	우민호	한국	215만6790
6	승부	김형주	한국	214만5532
7	검은 수녀들	권혁재	한국	167만559
8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줄리아스 오나	미국	165만4160
9	A MINECRAFT MOVIE 마인크래프트 무비	자레드 헤스	미국	134만8931
10	썸머볼츠*	제이크 슈레이어	미국	92만192

한국 영화가 안될 때는 할리우드 영화가 선제공격을 감행해 줘야 한다. 이른바 흑묘백묘론이다. 그러나 할리우드 대형 작품들도 예전 같지 못하다. 할리우드 제작자, 배급업자들도 고개를 가우뚱하고 있다. 브래드 피트 주연의 ‘F1 더 무비’는 쿠폰 할인 행사 덕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영화임에도 간신히 250만 명을 넘기고 있다. ‘쥬라기 월드’ 역시 210만 명 대다. 미국에서 대성공을 거둔 ‘슈퍼맨’은 한국에선 참혹한 수준이다. 80만 명 선에서 멈추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이른바 작품 전반에 대한 퀄리티 컨트롤이 다소 하향평준화 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정부 티켓’ 450만 장의 혜택을 받게 될 영화 중 예매 1위를 달리고 있는 조정석 주연의 ‘쫄비탈’은 웃음과 코미디를 원하는 지금의 사회 분위기에 적합한 영화일 수는 있어도 작품성으로 논할 작품은 아니다. 감독 류승완의 영화사 ‘외유내강’이 제작해 13일 선보이는 소녀시대 윤아 주연의 ‘악마가 이사 왔다’ 역시 장르영화일 뿐이다. 상업적인 수익을 목표로 기획된 작품이다. 현재 국내 영화 중 예술과 흥행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작품은 9월 말 개봉 예정인 ‘어쩔 수가 없다’밖에 없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고 이병헌과 손예진, 염혜란이 나온다.

“한류는 흥행 중...영화는 영화대로 실패해야”

한국 영화계가 처한 가장 심각한 난제는 정신적, 심리적 분열증이다. 극장은 ‘망해가고’ 있지만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같은 OTT 한류 콘텐츠, ‘킹 오브 킹스’ 같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류, K팝의 산업적 효과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놓고 영화계는 분열적 논쟁에 휩싸여 있다. 한쪽에서는 현재의 급한 불을 꺼야 한다, 민생 지원 차



1 개봉 첫 날 43만 관객을 모아 올해 오픈닝 최고 성적을 기록한 영화 ‘쫄비탈’. 2 최고 인기를 끈 웹소설 원작으로, 창천만 영화 ‘신과 함께’ 제작사가 만들어 올해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는 ‘전지적 독자 시점’. 3 9월 개봉 예정인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4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 5 13일 개봉 예정인 ‘악마가 이사왔다’.

원에서 소비 진작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271억원의 지원금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건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날 선 비판이 나온다.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인프라 확충 쪽으로 무게 추를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영화는 현재 절대적으로 몰랑이 부족하다. 편수가 너무 떨어져 있다. 올해 제작 편수는 상업영화 기준으로 25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20년 58편의 반타자이다. 한국의 상업영화는 2000년 이후 코로나19 이전까지 꾸준히 60~100편이 만들어져 왔다. 이 편수의 부족이 결국 ‘대박 영화’ 경우의 수를 줄이고 있고 결국 총 관객 수의 급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영화계 일각에서는 271억원의 긴급 자금을 이어 3000억~5000억원의 제작 펀드를 조성해 영화 몰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설득력 또한 얻고 있다.

방법은 없다. 일로매진(一路邁進)이다. K팝의 성공을 잇는 영화와 드라마 콘텐츠의 해외시장 구축과 건설에 주력해야 한다. 영화 부문은 영화 부문대로 국가가 자금을 투입해 이익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한국 영화산업에 대한 분열적 중중들을 극복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이번 정부의 남은 기간이 한국 영화산업의 생사여탈이 결정되는 기간일 것이다. 무릇 격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이유다. 한국 영화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오동진 연합뉴스·YTN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이후 영화주간지 ‘FILM2.0’ 창간, ‘씨네버스’ 편집장을 역임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컨텐츠필름마켓 위원장을 지냈다. ‘사랑은 혁명처럼 혁명은 영화처럼’ 등 평론서와 에세이 ‘영화, 그곳에 가고 싶다’를 썼다.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 제 보 청 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